



기본적인 UI는 모바일 환경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미지 갤러리 형태이다. 주 타겟인 2,30대를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탭을 이동하여도 일관적인 UI를 제공한다.

슬라이드 바를 통해 한 앨범에서 한 줄에 보여지는 썸네일의 수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 한 점은 좋다. 다만 바의 크기가 너무 작아 미세한 조정이 힘들다. 또한 한 줄당 썸네일 수는 오직 자연수로 주어지므로 슬라이드 바를 사용하기 보다는 수를 직접 입력하거나 DropDownList 등을 활용하여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배경색과 썸네일 이미지의 색 대비를 부여하여 썸네일 이미지가 쉽게 눈에 띄도록 한 것과 경고 및 완료 메시지에 색을 부여한 점은 좋다. 하지만 색약 이용자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에 사용된 색들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추억” 탭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직관적이지 않다. Proposal을 통해 추억 탭이 AI가 제안해주는 앨범 목록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쉽게 알아챌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추억 탭

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면 부가 설명 창을 띄워 주거나, 설명 버튼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추억 추천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능동적인 사용을 늘린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되어 usability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능을 수행할 때마다 일일이 앨범이 추가된다면 AI를 활용한 자동화의 이점이 소용없어진다. 기능을 쓰면 쓸수록 앨범의 수가 많아져 short term memory를 넘어서게 되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고, 앨범들의 배치에 일관성이 사라진다. 따라서 앨범이 표시되는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